

# SM, 용제용 95만원으로 보합세

## 관세환급 적용 안돼 수입제품 없어 ... 11월 내수가격 상승 전망

10월 용제시장의 SM(Styrene Monomer) 가격이 9월 가격과 같은 kg당 950원에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SM 용제시장은 전체 SM 시장의 2% 이하로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PS(Polystyrene)용이 전체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3% 내외의 UPR(Unsaturated Polyester Resin)과 함께 일부를 차지하고 있다.

SM은 2002년 총 33만6000톤, 2003년 1-8월 25만4000톤이 수입됐는데 ABS, PS 용도로 사용되는 SM은 관세환급 등이 적용돼 수입제품이 사용되고, 용제용 SM은 혜택이 없고 보관이 어려워 국내 생산제품만이 거래되고 있다.

생산기업 관계자는 "9월 SM 국제가격은 하락했으나, Benzene과 Ethylene 가격 등으로 10월 SM 가격이 보합세로 kg당 950원에 거래될 것"이라고 밝혔다.

SM 내수가격은 Benzene과 Ethylene 가격 및 SM 국제가격에 의해 결정되며, 용도별로 거래량에 따른 가격 차이가 있는데, Benzene 가격은 USCP가 적용된다.

ABS, PS 용도로 사용되는 SM도 10월 국제가격 상승에 따라 인상될 것으로 보이는데, SM 국제가격이 10월3일 FOB Korea 톤당 650-660달러, 10월10일 670-680달러, 10월17일 690-705달러에 거래됐다.

아시아에서 Ashahi Kasei의 Mizushima 소재 No.1 15만톤 플랜트가 9월16일-10월2일 EB(Ethyl Benzene) 플랜트 이상으로 3주간 50%만 가동됐고, 울산의 SK는 10월16일 전기공급으로 하루 Shut Down해 17일부터 정상가동에 들어갔다.

LG화학은 여천의 SM No.1, No.2 플랜트의 설비보수와 함께 총 12만톤의 증설에 돌입했는데, No.1 15만톤 플랜트가 9월30일-11월16일, No.2 22만5000톤 플랜트는 9월30일-11월7일 정기보수한다. 동부한농화학은 No.1 12만톤 플랜트가 9월8일-28일 20일간, No.2 11만톤은 10월8일-17일 10일간 정기보수에 들어갔다.

원재료인 Benzene은 10월 FOB Korea 톤당 428-437달러로 9월 423-433달러보다 5달러 상승했고, 10월에는 가격변동이 심해 11월 가격전망이 어려운 상황이다.

Ethylene은 호남석유화학의 수요감소로 2만톤의 잉여가 발생해 가격하락이 예상된다. <김동민 조사연구원>

<Chemical Journal 2003/10/31>